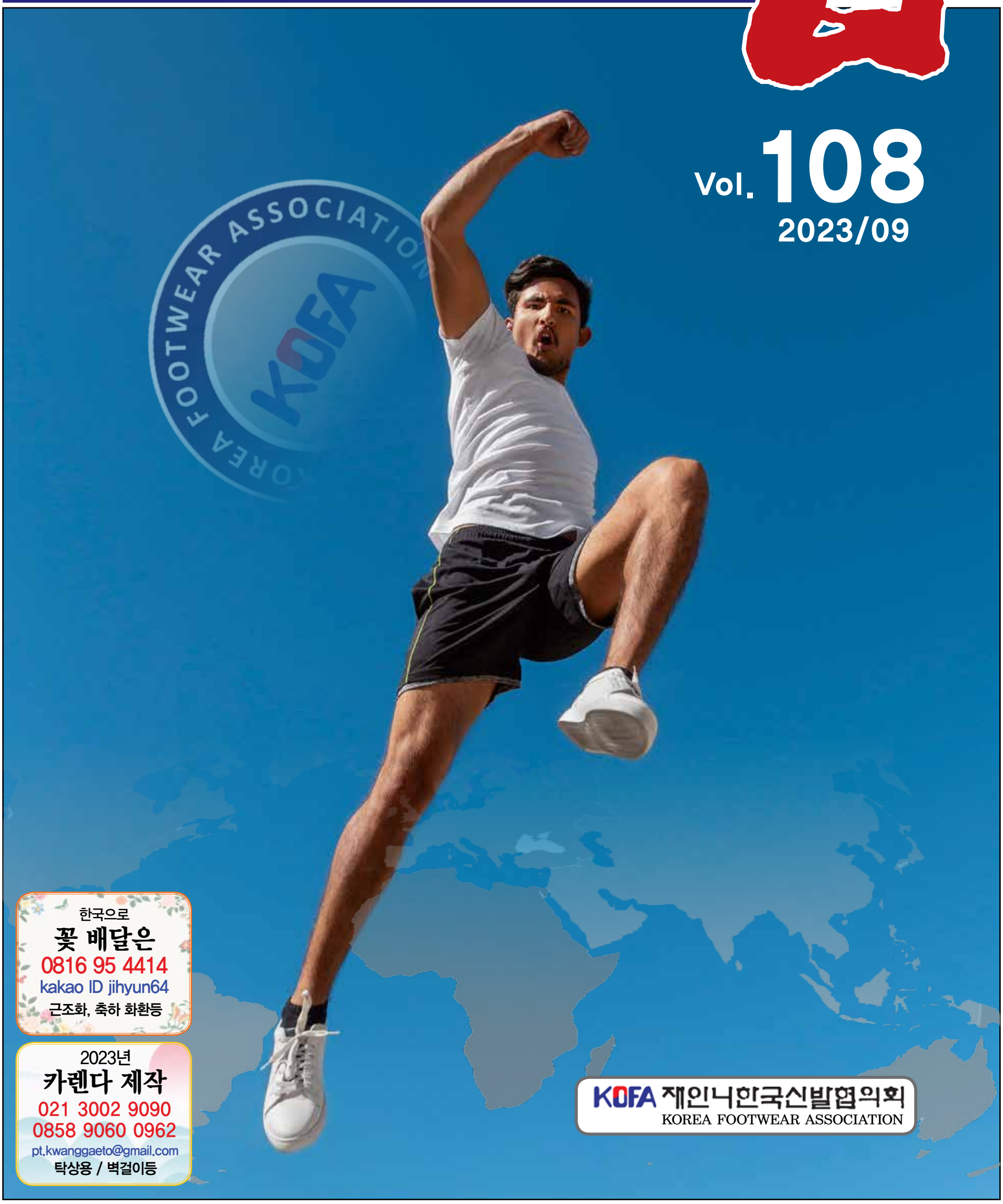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KOFA)
사무국 이전 개소식 및 현판식 열려

MONTHLY KOFA

# 코파의 힘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08
2023/09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2023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KOFA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 인도네시아, 대기오염 낮추려 재택근무 권고에 고용주들 난색

## 자카르타, 전 세계 주요도시 공기질 또 최하위

▲지난 20일 자카르타의 뿌연 하늘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아세안 정상회의(다음 달 5~7일)를 앞두고 수개월째 잿빛 하늘을 이어가자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스위스에 본부를 둔 글로벌 대기질 분석 업체 아이큐에어(IQAIR)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자카르타의 공기질지수(AQI)는 172를 기록,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간 서울은 72였다.

AQI가 0~50이면 '좋음', 51~100은 '보통', 101~150은 '민감한 사람에게 나쁨', 151 이상은 나쁨 수준이다. 301부터는 위험으로 분류된다.

자카르타는 지난달부터 AQI가 150이 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건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대기 순환이 정체된 영향이다.

현지 언론은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 달 넘게 기침을 하는 등 호흡기계 질환을 앓는 시민이 지난달에만 15만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마스크 쓰고 출근하는 자카르타 시민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최악의 공기 질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자카르타에 있는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공무원들부터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람들의 이동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해 보겠다는 의도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에 따르면 자카르타 대기오염의 가장 큰 오염원은 자동차 · 오토바이 배기가스다. 자카르타와 인근 위성도시들의 인구는 3천만명에 이르지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시민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아핀도)는 성명을 통해 "재택근무 확대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불법 쓰레기 소각이나 노후 차량의 배기가스 등 본질적인 오염원을 막고 인공강우와 같은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 역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만큼 원격 근무를 시행할 수 없다며 "손해가 발생해도 정부의 지원은 없고 기업이 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헤루 부디 하르토노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은 재택근무 의무화는 공무원에게만 해당하고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며 "재택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KOFA) 사무국 이전 개소식 및 현판식 열려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회장:이종윤)에서 지난 24일 땅그랑 소재 피낭시아로 새 사무국으로 이전 개소식 및 현판식을 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KOFA) 강호성 수석부회장, 재인도네시아 땅그랑 반튼한인회 채만용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회장단이 참석해 KOFA의 새 사무국 이전을 축하했고 회원사의 확대와 하나되는 공감대, 상호 상생하고 협력하는 협회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창립 당시 재인도네시아 땅그랑 반튼한인회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했고 이후 2013년 땅그랑소재 실크로드인도네시아에서 10년간 사무국을 함께 운영해 오고 있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는 대외협력 및 회원사의 방문 편의성과 독립적인 협회 운영을 위해 새 사무국을 개소하게 되었으며 이전한 사무국 주소는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사무국 전용 전화번호는 0856 9113 2325이다.

땅그랑소재 피낭시아는 평소 회원사들의 왕래가 많고 특히 한국계 은행과 한인 식당이 밀집되어있는 위치라 회원사 및 관련 업체에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각 회원사의 PR과 회원사 소개 카다록등을 비치해 사무국을 찾는 분들에게 기업홍보를 자연스럽게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인도네시아내 단위 협회중 독립된 사무국은 KOFA가 처음으로 운영하게 된다.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KOFA)는 창립 15년만에 단독 사무국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회원사의 편의와 정보교류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 및 회원사 상호간 탄탄한 결속과 한국신발산업의 미래 비젼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으로 본다. KOFA사무국

# 인도네시아 대통령 "10년내 1인당 GDP 1만달러 돌파 목표"

## 내년 5.2% 성장 · 물가상승률 2.8% 전망 … 신수도 건설에 3조6천억원 편성

▲예산안 발표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자카르타 AFP=연합뉴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8.17. photo@yna.co.kr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년 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배로 늘려 1만 달러(약 1천341만원)를 돌파할 것이란 목표를 제시했다.

17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인도네시아가 지금과 같은 다운스트림(하류 산업) 육성에 집중하면 10년 후에는 1인당 소득이 1만900달러(약 1천463만원)에 이르고 독립 100주년인 2045년에는 2만5천달러(약 3천355만원)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 규제 정책을 앞으로 팜유나 해조류 등 비광물 상품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원자재 수출업체에는 괴롭고 국가 수입에도 단기적으로는 불리한 정책이지만 이를 가공할 시설이 준비되면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 시작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차기 지도자는 기존 경제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자카르타 로이터=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인도네시아 78주년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3.8.17. photo@yna.co.kr

2014년부터 대통령을 맡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재선 임기 중이어서 내년 2월 대선에 나설 수 없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원자재를 통한 정·제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2020년 니켈 원광 수출을 막았고 이런 수출 규제 정책을 구리와 보크사이트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신 광물 회사들에 정·제련소를 설립하도록 해 광물들을 제품 형태로 수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런 결정에 해외 주요 광물 업체들도 인도네시아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한편에선 자원 민족주의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제 정책이 IMF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낳아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상태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이런 수출 규제 정책으로 수출과 투자가 늘고 있다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음 정권도 외압을 이겨내고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 늘어난 3천123조7천억 루피아(약 275조원) 편성했다며 이 중 40조6천억 루피아(약 3조6천억원)를 신수도 건설 예산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2%를 달성 3년 연속 5%대 성장을 이어가고 물가 상승률은 2.8%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는 칼리만탄섬에 신수도 누산타라를 건설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320억달러(약 43조원)를 들여 2045년까지 신도시를 완공할 예정이지만 당장 내년 중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골프대회

인도네시아 한인들에게 의미 있는 8월 15일 광복절 날,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골프대회를 Damai Indah(PIK)에서 개최하였다.

주인니 한국 이상덕 대사와 Djasri Marin 전 육군헌병사령관, 한인회 임원 및 각계 인사들, 특히 인도네시아 프로 지망 청소년 골프 선수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박재한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곳에 정착한 인도네시아한 인들은 기회의 땅이 되어 준 인도네시아를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를 지속함에 새삼 뿌듯하다. 이제 그간의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이 함께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180명의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이상덕 대사는 "세계의 어느 한인사회보다 화합하고 모범적인 인도네시아한인사회가 자랑스럽다"며 9월 18일, 수교50주년 기념리셉션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계속되는 콘서트 전시 등의 코리아위크 기념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대회 결과로는 Medalist에 김종헌, Winner A에 이근대, Winner B에 장용원, Winner (여)에 변진이 차지했다.

여러 한인단체와 협회의 후원이 함께 한 저녁만찬에는 가수 홍동균의 발라드 무대와 한국과 인도네시아 혼합 K-POP댄스팀 'ISME' (지도 이은주 LEEJ DANCE STUDIO)의 신나는 댄스, 한인사회에 알려진 한인동포의 개인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이 이어졌다.

(제공: 한인뉴스)

# 이중국적 허용 요구 증가하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여권 (Shutterstock/Alii Sher)

반뜬주 남부 땅그랑 출신 24세의 바가스는 싱가포르에서 막 석사학위를 딴 후 거기 계속 머물지 인도네시아의 집으로 돌아갈지 고민 중이다.

그는 싱가포르의 한 유명 공립대학교에서 정보시스템을 전공했다. 싱가포르에서 직장이 잡히면 계속 머물려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비단 바가스 만이 아니다.

실미 까림 인도네시아 이민국장이 지난 7월 밝힌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기간 중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약 4천 명이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작년에는 1,091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는 2020년 약 800명이 귀화한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해외에서 더 나은 복지와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 대한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의 응원이 한동안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5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인재들이 장기 국가발전 계획의 중추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망한 젊은이들의 해외이주 러시는 이러한 비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재 유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담론이 지지단체들과 해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민권법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예외적으로 17세까지 이중국적이 허용되는데 해당 연령이 넘으면 3년 안에 어느 한쪽의 국적으로 결정해 관련 등록을 마쳐야 한다.

트위터가 이제 이름을 바꾼 엑스(X) 계정@Maryamlsmah 사용자는 더 나은 급여와 생활환경을 찾아 인도네시아 국적을 버리고 영국인이 되었지만 만약 인도네시아가 이중국적을 인정했다면 아마도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 말했다.

젊은이들 처우 문제

바가스는 인도네시아보다 싱가포르에서 자신이 더 수익성 높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싱가포르에서 IT 업계에 취직하게 되면 그가 전에 잠시 일했던 인도네시아의 IT 거대기업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역시 인도네시아가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개인과 국가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해외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의 학문적 역량으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도 일정 부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다국적 혼인 소사이어티(이하 PerCa)라는 단체 역시 이중국적을 지지한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인과 외국인이 혼인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당국이 이중국적을 포함한 좀 더 넓은 선택지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뻐르짜(PerCa) 회장 아날리아 뜨리스나는 현재의 엄격한 시민권법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인재가 될 젊은이들을 소외시켜 사실상 추방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공립대학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립대학의 어마어마한 등록금에 떠밀려 많은 혼혈가정 이중국적 자녀들이 외국 여권을 들고 해외로 나가 공부하는 경향이 큰데 이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들이 가진 또 하나의 국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해당 국가로 나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니 굳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지급하는 교육교부기금(LPDP) 수혜자들에게 '급여와 대우가 다른 나라보다 낮을지라도' 본국으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애국심 하나만으로 더 나은 가능성을 포기하고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선택할 사람들은 분명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2045년 선진국 도약을 위해 자체 인적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해 활용하려면 당연히 이들 젊은 인재들과 아래 세대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 국가적 최선책이라고 아날리아는 지적했다.

아직 갈 길이 먼 상황

하지만 이중국적에 대한 논의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수면에 떠오를 다른 문제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제법 전문가 힉마한또 주와나(Hikmahanto Juwana)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면 많은 이들이 싱가포르로 넘어가 인도네시아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될 것이고 화이트컬러 범죄자들의 해외도피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중국적이란 선택지가 공식화되면 사람들을 기회주의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애국심을 반감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려면 먼저 잘 사는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5년 미국의 한 다국적 결혼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은 전 에너지광물자원부 아르짠드라 따하르(Arcandra Tahar) 장관이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가차없이 해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인도네시아 국적을 버린 이들 중엔 인도네시아에 뭔가 기여하길 갈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중국적자들에게 무슨 애국심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늘 그들 앞을 가로막는다.

45세의 셜리는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해 뉴질랜드로 넘어와 회계사가 되었지만 그러기 위해 원래의 국적을 버려야 했던 일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그녀의 자녀들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뉴질랜드인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셜리 자신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회복할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이중국적자가 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중국적 취득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이들은 싱가포르에도 있다. 싱가포르에서 이제 정년을 앞둔 이들은 현지의 높은 물가가 노년의 생활을 쪼들리게 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바가스의 클래스메이트인 에릭(29)은 싱가포르에서 죽을 때까지 살 생각은 없으므로 최소한 싱가포르 영주권 따는 것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 신문]

KOFA의 힘 광고를 제안합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완제,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 징
1)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회원사 약 2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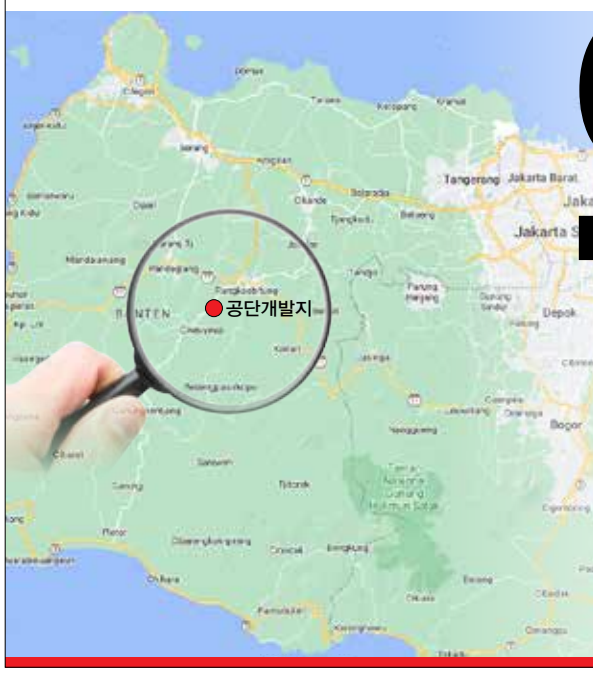
**2,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821 1122 8827(mr. kang)

muns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Rp 2,944,665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2$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 출발지 | 거리 | 소요시간 |
|---|---|---|
| Gerbang Tol Tangerang | 85 Km | 1H 10M |
| Air Port (CGK) | 103 Km | 1H 30M |
| SCBD Jakarta | 108 Km | 1H 40M |
| Tanjung Priok Port | 121 Km | 2H 30M |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cb@muns.id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cb@muns.id, munscb33@gmail.com
www.muns.id

# 인니 2024년 정부 예산, 외부 위험 속에서 내수의 힘에 의존

▲조코위 대통령이 2024 회계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안과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DPR 전체회의 에서 제출하고 있다.(사진=대통령 비서실)

인도네시아 내년도 예산안은 서방 국가의 경기 둔화와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외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5.2%의 GDP 성장률 목표가 낙관적이지만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엘니뇨 기상 패턴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원자재 가격 변동과 루피아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내년 수입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2024년 국가 예산은 수입과 지출 사이에 522조 8천억 루피아의 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계획에 명시된 598조 2천억 루피아의 적자보다 12.6% 감소한 수치이며, GDP의 약 2.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도네시아는 예산안 계산을 위해 내년 루피아 환율을 달러당 15,000 루피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6.7%로 가정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16일 의원들에게 "2024년 국가 예산은 현재와 미래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은 단기적으로 국가 예산은 극심한 빈곤 퇴치, 발육 부진 감소, 인플레이션 통제 및 투자 확대에 집중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 개선, 인프라 개발 가속화, 천연자원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경제 활동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예산 계획은 세금 징수가 14% 이상 증가한 2,308조 루피아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수입이 올해 예산 계획보다 12.9% 증가한 2,780조 루피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지출은 올해 예산 계획보다 7.9% 증가한 3,300조 루피아로 예상된다.

예산 계산에 사용되는 유가 기준인 인도네시아 원유가격(ICP)은 2024년 배럴당 80달러로 올해 가정치인 90달러보다 낮게 설정됐다.

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치는 5.2%로 올해 국가예산 목표치인 5.3%보다 약간 낮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2023년 예산에 명시된 3.6 %보다 낮은 2.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은 GDP 성장률 목표가 미국과 유럽 국가의 예상되는 경제 회복 둔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통화 정책 조정이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12~18개월 후에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내년 국가 예산을 미국과 중국 간의 "복잡한 관계"와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스리 장관은 16일 다른 장관들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는 특히 수출 측면에서 내년 성장의 하방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스리 장관은 올해 2분기 수출 성장 둔화를 지적하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통해 국내 소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이를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위해 사회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자리 창출과 직원 복지를 늘려 지속 가능한 소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은행 BCA와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미래에셋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GDP 성장률 목표치인 5.2%를 달성할 수 있으며 세금 징수로 인한 정부 수입 증가 전망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데데는 16일, 내년에는 원자재 부문의 세수 징수가 둔화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성장원으로부터의 세수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영은행인 인도네시아 시리아 은행(Bank Syariah Indonesia )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반자란 수리아 인드라스또모는 16일 내년 GDP 성장률 5%, 인플레이션 3%로 예상한 내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 전망은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수무알은 지정학적 긴장이 루피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입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내년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한편, 쁘르마따 은행의 조수아는 올해 8월이나 9월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엘니뇨 기상 현상으로 인해 식량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예산에서 정부는 교육 지출에 660조 8천억 루피아를 배정했는데, 이는 올해 배정액에 비해 7.94%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인프라 지출은 7.91% 증가한 422조 7천억 루피아로 비슷한 증가율을 보인다.

의료 및 식량 안보에 대한 국가 지출은 각각 4% 이상 증가한 186조 4천억 루피아와 108조 8천억 루피아로, 2024년 선거 연도의 사회 원조 지출은 3.68% 증가한 493조 5천억 루피아로 책정됐다.

내년도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에 329조 9천억 루피아를 배정했는데, 이는 올해 계획의 339조 6천억 루피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이는 ICP 벤치마크와 루피아 환율 전망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24년 국가 예산에는 미래수도 누산따라 개발을 위해 40조 6천억 루피아가 할당됐다. 이 중 약 35조 4천억 루피아가 건설 부문을 담당하는 공공사업주택부에 배정될 예정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중국 40년 호황 끝났나… “세계경제 사상 최대폭 변속기어 직면”

## SJ “고성장 모델 망가져 일본처럼 장기침체 빠질수도”
## 기반시설 · 부동산 과잉투자로 경제효과 없이 부채만 누적
## “2030년대 2% 성장…G1은커녕 ‘중진국 졸업’ 어려울 수도”

중국 경제의 40년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건설 위주 성장 모델이 더는 지속되기 힘들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WSJ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제하의 해설기사에서 “중국을 빈곤에서 벗어나 대국으로 이끈 경제적 모델이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 신호가 온천지에 널렸다”고 단언했다.

기반시설 · 부동산 개발에 정부가 대규모로 자본을 쏟아부었지만 갈수록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져 심각한 비효율과 부채 문제가 불거졌고 이런 어려움은 이제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다.

WSJ은 “중국 일부 지역은 사용률이 낮은 교량과 공항을 떠안았으며, 수백만채의 아파트가 미분양됐다. 투자 수익률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헝다그룹이 지은 장쑤성 화이안의 아파트 단지 [AFP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문을 연 1978년 이후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눈부신 발전을 구가해 왔다. 한때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중국이 급기야 세계 2위 경제국이 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모습에 일부 학자들은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기간 중국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4%가량을 국내 기반시설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전 세계 평균(2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고속도로와 공항, 발전소 등 부족했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잉건설의 증거가 명확해졌다”고 WSJ은 지적했다.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과잉 · 중복 투자가 이뤄지면서 경제효과는 마땅찮은데 막대한 부채만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절벽과 미 · 중 갈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전망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는 중국의 성장 속도가 훨씬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소속 역사학자인 애덤 투즈 교수는 “우리는 세계경제 역사에서 가장 급격한 궤도를 그리는 기어 변환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최소 6%대를 기록했던 중국의 GDP 성장률이 앞으로 수년간 4%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중진국을 ‘졸업’하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되며,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한다는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WSJ은 짚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가 19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침체를 겪는 일본과 동일한 경로를 걸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1인당 GDP를 1달러만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1990년대에는 1인당 3달러, 10년 전에는 5달러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9달러까지 치솟은 상태라고 추산했다.

그런 와중에도 중국 지방정부들은 기반시설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중앙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기조를 전환한 상황인데도 윈난성 원산시가 대규모 코로나19 격리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7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개입을 오히려 더욱 늘리는 모습도 보였다.

# [2024대선] 골까르 · PAN, 쁘라보워 후보 지지 천명

## 쁘라보워, 유리한 대선 고지 점령… 조코위, 메가와티와 충돌 조짐

▲지난 8월 13일 자카르타에서 골까르당과 PAN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선 후보 지지 성명을 밝혔다. 왼쪽부터 줄끼플리 하산 PAN 대표,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골까르당 대표, 쁘라보워 그린드라당 총재,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PKB 대표가 쁘라보워 후보 [유튜브 캡처]

민족주의 성향의 골까르당(Golkar)과 이슬람 성향의 국민수권당(PAN)이 쁘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Grindra) 총재를 2024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현 국방장관인 쁘라보워가 내년 2월 14일로 예정된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다.

쁘라보워를 지지하는 정당은 자당인 그린드라당, PKB(국민각성당), 골까르당 및 PAN 등 총 4개 정당으로 늘어나면서 의석수 기준으로 41.4% 지지율을 확보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자카르타 독립선언박물관에서 열린 4개 정당대표 회동에서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골까르당 대표이자 현 경제조정장관인 “그는 (쁘라보워) 평등주의를 공유해왔고 골까르당과 같은 길을 걸어왔다”며 “인도네시아가 중진국 함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금 (쁘라보워가) 가장 적합한 지도자이다”라고 밝혔다.

줄끼플리 하산 PAN 대표이자 현 무역장관은 “PAN 지도부는 숙고한 후, 변함없이 쁘라보워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스 피트리아디 정치전문가는 골까르당과 PAN이 쁘라보워를 지지함에 따라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를 후보로 지명한 투쟁민주당(PDIP)을 크게 앞지르게 됐다고 촌평했다.

수꼬 위도도 아이르랑가대학교 정치학자는 골까르당과 PAN이 쁘라보워를 지지함에 따라 결선투표 없이 한번에 선거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투쟁민주당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골까르와 PAN이 쁘라보워를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과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 총재 간 불화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메가와티 총재가 지난 4월 21일 간자르 중부자바 주지사를 자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발표한 이후, 조코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은 쁘라보워와 여러 차례 회동하면서 쁘라보워 지지를 암시했다.

하지만 투쟁민주당 소속인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는 만큼 내년 대선의 킹메이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조코위는 전국적인 강력한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대선 후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날 쁘라보워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조코위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을 인정하고 번영된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초를 더욱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선은 정당 간 정치적 연합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러닝메이트 등 후보 인물에 비중이 큰 만큼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을 아직 예단하기에 이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등 印尼주요 도시에서 가사노동자들 단식투쟁 돌입

## 2004년 발의 가사노동자보호법 통과 계속 지연돼 차별 학대 굴욕 등 시달려도 정부 보호받지 못해

▲[자카르타(인도네시아)=AP/뉴시스]인도네시아 가사 노동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이 14일 수도 자카르타의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가사 노동자 보호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가사 노동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이 14일 의회가 가사노동자 보호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에 항의,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해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단식 시위는 수도 자카르타와 인도네시아의 다른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졌고, 법안 통과 때까지 매일 열릴 것이라고 가사 노동자들을 위한 전국 옹호 네트워크의 리타 앙그라이니는 말했다.

그녀는 "단식 투쟁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많은 가사 노동자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가사 노동자 보호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더 오래 지연될수록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에서는 가사노동자 동맹 소속 40여명이 국회의사당 앞 천막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시계, 아기 젖꼭지, 냅킨 및 기타 청소 장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가정부가 직면한 어려움을 상징하는 사슬을 들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회에는 2004년 차별, 학대, 굴욕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사 노동자 보호 법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유로 20년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입법부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승인하기로 합의했지만, 하원 지도부는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420만 명의 국내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가속화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인도네시아 대학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가사 노동자는 약 420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380만명의 인도,260만명의 필리핀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사 근로자들은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없어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위협과 고립뿐만 아니라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이 조사에서 나타났다.

여성이 가사 노동자의 84%를 차지하며, 아이들도 14%를 차지한다. 가사 노동자는 종종 착취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 그들은 또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노동법과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 '건달(乾達)' 이야기

언어는 항상 변한다. 역사성과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의미가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예전에는 '어리다'고 하면 '어리석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쓰인다.

제일 나쁘게 변한 것이 바로 '건달'이라는 단어다. 원래 '건달'은 불교에서 풍류의 신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행패와 난봉을 부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한다.

신라 진평왕(재위 579~632) 때 융천사가 지은 향가에 이런 글이 있다. "옛날 동해 물가 건달파가 놀던 성을 바라보고, 왜군이 왔다! 봉화를 든 변방이 있더라." 여기서 '건달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건달'을 말한다. 범어 Gandharva를 음역한 말이다. 그 의미는 '변화막측'이고 제석천에서 '음악을 맡아보는 신'이다.

건달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만 먹고 허공을 날아다닌다고 한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불교가 천시되면서부터 예인(藝人)을 이르는 말로 변했고, 현대에 와서 놀고먹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과거 신라시대에는 화랑에서 인재가 배출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화랑의 자식'이라 하면 '무당의 새끼'라는 뜻으로 격하된 것과 같다.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학회 회장
저서:한국어문화문법외 50여권

Perkins Cummins YANMAR MITSUBISHI FAW DEUTZ mtu ISUZU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 매 임 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 형 5kVA ~ 220kVA
중 형 250kVA ~ 700kVA
대 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제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현지인 Hp : 0857 7752 7542
Hp : 0812 9012 2019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pusat_BGT@yahoo.com

# 인니 정부, 외국인 주택 소유 규정 완화… 고소득자에 해당

▲남부자카르타의 빠꾸부워노 아파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부터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규제 불일치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그 노력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농업공간계획부 수유스 윈다야나(Suyus Windayana) 국장은 지난 1일 2017년과 2023년 동안 200명 미만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2023년 현재까지 등록된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3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부분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역 행정부가 부동산 구매 시 요구하는 조건 사이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시행된 토지 권리에 대한 정부 규정은 외국인이 제한/영구 체류 허가증(KITAS/KITAP)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배제하고, 여권 및 비자만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당국은 여전히 KITAS/KITAP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수유스는 말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자국민을 위한 부동산 시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외국인이 지상 주택의 경우 표면적이 2,000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 한 구획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유스 국장에 따르면, "2,00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도 있지만, 확장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증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승인은 국토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제한 사항으로는 최소 가격 설정이다. 정부는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부동산을 아파트의 경우 30억 루피아, 자카르타 내 단독주택의 경우 50억 루피아로 정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 가격이 훨씬 더 낮을 수 있으며, 가장 저렴한 가격은 10억 루피아다.

부동산 소유권 완화는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복잡한 관료주의를 완화하여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투자하고 거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법에 의해 도입된 개혁의 일부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 건설을 포함한 건설 부문은 올해 2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다섯 번째로 큰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됐다. 정부는 특히 고용과 소득에 있어 승수 효과가 가장 큰 분야로 간주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법 이전에 외국인은 건축권(hak guna bangunan)이 있는 토지가 아닌 사용권(hak pakai) 자격이 되는 기존 건설된 아파트나 지상주택만 소유할 수 있었다.

이전 규정에서는 사용권 지위를 가진 토지에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에 대한 공급 제약이 발생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외국인에게 부동산 구매 조건이 더 넓어진 셈이다.

콜리어스 인도네시아의 연구책임자 페리 살란또는 10일,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지만, 이 규정이 외국인 구매자의 실제 구매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 정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페리는 "외국인 구매력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다.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부유한 것은 아니며 인도네시아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페리는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일하기 위해 몰려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국인 근로 계약의 특성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보통 2년 또는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머무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배치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콜리어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외국인이 새 규정의 최소 30억 루피아 가격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새로운 부동산 소유 규정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Diaspora)에게도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Diaspora) 네트워크 글로벌 이사회 의장인 디노 빠띠 잘랄은 9일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환영할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디아스포라 중 상당수가 중산층 또는 중상위 소득층이어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아쩨주, 차량 및 공공장소에서 남녀 장소 구분하기로

극보수 성향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이슬람 율법을 현실 생활 속 법률과 정책으로 강제하려 노력해 온 아쩨 주정부는 친인척 관계나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가 차량이나 공공장소에서 별도로 구별된 공간에 따로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수마뜨라섬 북단의 아쩨주는 무슬림이 인구 태반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유독 이슬람법을 헌법 못지 않은 우위에 둔 유일한 지역이다.

1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쩨 당국은 지난 주 발행한 회람문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가족들이 아닌 한 공공장소나 기도소 및 차량에서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아쩨 주정부 대변인 무함마드 MTA(Muhammad MTA)는 지난 10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가 2045년 독립 100주년을 맞기 전까지 일상생활에서부터 이슬람의 종교적 가치에 부합하는 신실한 신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회람문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아쩨의 신세대들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이슬람의 가치가 녹아 든 전통과 문화 및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주정부 회람문에 명시된 지침이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한 후 나온 것으로 '예방적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명령을 위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따르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자카르타 아쩨인동맹(ARA)의 대학생 회원들이 지난 2005년 헬싱키에서 맺은 정부와 아쩨해방운동 간에 맺은 평화협정에서 약속한 아쩨거버넌스를 지원하는 정부규정 및 대통령령을 시행하라고 조코위 정부에 촉구했다.2014.11.11.(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아쩨에서 도박, 음주, 혼외 정사 등을 종교법 위반으로 단속해 공개 태형으로 처벌하는 법집행이 공공연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아쩨 주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줄곧 계속되어 왔던 아쩨 분리주의 반군들과의 오랜 갈등을 봉합하고 그동안 이반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2001년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인 협정을 맺어 내전을 종식시키는 대가로 광범위한 자치권과 샤리아법 적용을 아쩨주에만 독점적으로 허용했고 그 이후 아쩨는 인도네시아에서 배타적 이슬람 근본주의의 유일한 아성이 되었다.

그 결과 아쩨에서는 결혼 전의 무슬림 남녀가 호젓한 장소에서 단 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칼왓(Khalwat)'이라 하여 종교법에 의거, 안전거리 위반으로 처벌하는 등 가혹한 종교법 적용이 당연시되어 왔다.

인도네시아는 6개 종교만을 인정하지만 어쨌든 어느 한 종교만을 신봉하지 않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 세속 국가이며 이슬람에 대해서도 정통 이슬람 근본주의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관용성을 가진 버전의 이슬람을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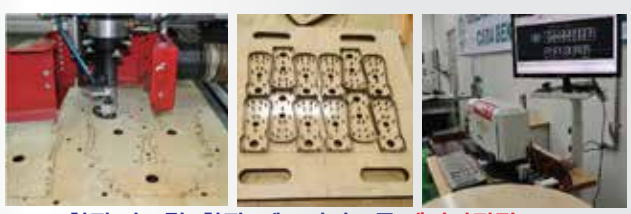
하지만 국가 전반을 세속주의 노선으로 운영하면서 수많은 물의를 빚은 수하르또 정권이 1990년대 말 몰락한 후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수 이슬람이 점차 득세하면서 여성 머리를 가리는 히잡 착용이 크게 증가했고 이슬람수호전선(FPI)로 대변되는 이슬람 강성 극우세력이 전국적으로 뿌리내리며 세를 키웠다.

얼마 전 서부자바 알-자이툰 쁘산뜨렌의 빤지 구밀랑 이사장이 여성에게 설교를 허락하고 남성 곁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신성모독' 혐의로 법집행 기관에 구속된 것은 정부 및 법집행기관 차원에서도 보수 이슬람화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톰슨목금형(톰슨발형) 아크릴 컷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져컷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컷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톰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톰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져절단, 씨링칼, 톰슨금형, 특수 칼금형

# 아직도 없다고? 어디든 매치하기 좋은 만능 운동화 4

**나이키 코르테즈**

코르테즈로 연출할 수 있는 패션의 A부터 Z까지 모두 선보인 김나영! 트위드재킷과 함께 우아한 무드부터 레드 오렌지 드레스와 섹시한 룩, 캐주얼한 데일리룩까지 정말 다양한 스타일링을 선보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노필터 TV에서 데일리 운동화를 소개할 때 코르테즈를 가장 먼저 소개하기도 했죠. 워터밤의 여신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수 권은비도 코르테즈를 앤더슨 벨의 유머러스한 니트 톱, 청바지와 함께 상큼하게 매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식스 젤 1130**

요즘 정말 잘나가는 아식스! 특정 한 모델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젤 소노마, 젤 1090등 다양한 모델이 두루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중 셀럽들이 자주 착용한 디자인은 바로 젤 1130입니다. 수영은 젤 1130 폴라 쉐이드 실버를 흰 원피스와 매치해 청순한 데이트 룩을, 이효리는 아식스 젤 1130 오이스터 그레이 퓨어 실버를 캐주얼하게 연출했죠. 크리에이터 짼과 스타일리스트 강정윤은 블록코어와 y2k 스타일로 매치했어요.

**아디다스 슈퍼스타**

요즘 은은하게 자주 보이는 슈퍼스타! 이주연은 와이드 슬랙스에, 〈경이로운 소문〉으로 돌아온 김세정은 조거 팬츠와 이를 매치했어요. 또, 아식스의 젤 소노마를 '주우재 신발'이라며 유행 시킨 주우재는 젤 소노마뿐 아니라 아디다스 슈퍼스타 코어 블랙도 애용합니다. 그는 원래 아디다스의 포럼이나 삼바를 선호하는 편이었으나 여행 가서 우연히 본 한 스타일링에 꽂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주우재의 말에 따르면 여러 곳에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뉴발란스 530**

뉴발란스의 대표템이자 데일리 슈즈 계의 스테디셀러! 착화감이 우수하며 가격도 적당하고 통풍도 잘 되어 요즘 같은 여름에 신기 딱 좋아요. 러닝화 디자인을 기본으로 해 스포티한 무드는 물론 원피스하고도 잘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아이템!

# 한국 신발산업 전도사 'K-풋웨어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

▲11일 출범한 K-풋웨어 글로벌 서포터즈가 부산테크노파크 녹산단지 내 신발 생체역학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체험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테크노파크 신발과 신발산업에 관심이 많은 다국적 외국인과 내국인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등 총 8개국 19명으로 구성된 K-풋웨어 글로벌 서포터즈는 소셜빈, 스티코, 뽀너스, 슈랜더, 디자인부산 등 신발관련 5개 기업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활동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11일 한국신발관에서 'K-풋웨어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한국 신발산업 현장과 국내 기업 제품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제품개발에도 참여해 보다 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세계 경쟁력을 갖춘 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안광우 부산테크노파크 신발패션진흥단장은 "이번 서포터즈 운영으로 세계적인 리딩 기업이 부산에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면서 "서포터즈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글로벌한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견학과 신발관련 전문교육도 실시해 다양하고 글로벌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뉴발란스, 마라톤 대회 온오프 전 채널로 접수 진행

## 올해 10주년 맞이해 "RUN YOUR WAY"로 변경..엘리트 그룹 별도 신설

뉴발란스(NEW BALANCE)가 러닝 축제 'RUN YOUR WAY SEOUL 10k 대회' 참가 접수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전 채널을 통해 대회 참가 접수를 진행하며, 20일까지 4일 간은 NB 러닝스토어(뉴발란스 강남점, 뉴발란스 홍대점)에서 RACE 패키지 구매 시 선착순 1000명에게 대회 참가권을 무료로 증정한다.

러닝스토어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17일만 오전 9시 오픈)부터 오픈할 예정. 또, 8월 22일 하루 뉴발란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RACE 패키지 전용 러닝화를 구매 시 '10k 대회 참가권'이 사은품으로 지급된다.

이번 대회는 총 8000명 러너들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뉴발란스 이번 대회는 서울 여의도 공원을 출발해 한강을 건너는 10k 순환코스로 러너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마음껏 뽐 낼수 있다.

뉴발란스 관계자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러너들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 며,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부터 엘리트 러너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마라톤 페스티벌로 RUN YOUR WAY 대회를 개최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푸마, NCT 127과 함께한 75주년 캠페인 공개

3가지 아이코닉한 모델로 구성된 '75주년 스니커즈 팩' 출시푸마가 브랜드 창립 75주년을 맞이해 NCT 127과 함께한 '75주년 캠페인(75 Years Celebration)'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APAC 앰버서더 NCT 127과 함께한 캠페인 화보 및 영상에서는 75주년 스니커즈 팩과 푸마 팀 어패럴 컬렉션을 완벽하게 소화한 NCT 127의 독보적인 비주얼을 만나 볼 수 있다.

브랜드의 아카이브 로고와 포스터 등을 활용한 세트 디자인을 통해 푸마의 75주년 스토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푸마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3가지의 아이코닉한 모델로 구성된 '75주년 스니커즈 팩'과 2000년대 레트로 무드를 재해석한 '푸마 팀(PUMA TEAM)' 어패럴 컬렉션을 제안한다.

또 1948년 창립 이래 75주년을 맞이한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재조명 한다.

75주년 스니커즈 팩은 푸마의 아이코닉 모델 △클라이드(CLYDE) △푸마-180(PUMA-80) △카프리 로얄(CAPRI ROYALE)'로 구성됐으며 클래식한 무드가 돋보이는 네이비를 메인 컬러웨이로 활용했다.

클라이드는 전설적인 농구 선수 월트 클라이드 프레이저(Walt 'Clyde' Frazier)를 위해 만들어진 스니커즈로 패션, 문화, 농구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브랜드의 아카이브 모델이다.

푸마-180은 스케이트보드 아카이브에서 착안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으로 청키한 실루엣과 오버사이즈 패딩 어퍼가 특징이다.

카프리 로얄은 깔끔하면서도 심플한 루킹을 선사하는 벌커나이즈드 제품이며, 클라이드와 푸마-180에도 적용된 미드솔의 에이징 트리트먼트로 빈티지한 감성을 강조했다.

푸마 팀 어패럴 컬렉션은 2000년대 초반 스트릿을 지배하던 힙합 패션을 재해석한 스타일과 레트로한 컬러 조합이 특징이다.

이번 시즌 푸마의 시그니처 트랙수트인 T7은 스카이 블루 컬러가 새롭게 추가 되었으며 팬츠의 경우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업데이트돼 힙합 무드를 더해준다.

이외에도 볼드한그래픽으로 레트로한 무드를 강조한 봄버 재킷, V넥 풀오버를 비롯 OG 컬러웨이로 시선을 사로잡는 우븐 재킷, 아노락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제안한다.

NCT 127과 함께한 75주년 스니커즈 팩 및 푸마 팀 어패럴 컬렉션은 푸마 공식 온라인 스토어 및 전국 푸마 매장을 비롯해 ABC 마트, 무신사, 에스마켓, 폴더 등 슈즈 멀티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Korea Genuine Lubricants
(윤활유)
Shell
유압작동유 • 열매체유 • 기어유 • 엔진오일(발전기) • 기타
유인대 대표 0811 83 43 98 021 598 0222
이광선 부장 0812 1007 7732 08118411 134 (WA)
Natasha 0812 1121 1010 yusung.jayaabadi@gmail.com
PT. YUSUNG JAYA ABADI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 중국도 동남아도 인건비 급상승... '세계의 공장' 맡을 나라가 없다

▲베트남의 한 의류공장. /로이터=뉴스1

베트남 호치민에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영국인 폴 노리스씨는 20대 신입 사원들이 사표를 내는 일이 잦아 고민이다. 임금을 제법 올려줘도 젊은 현지 직원들의 마음을 잡기 어렵다. 노리스씨뿐 아니라 중국 · 동남아시아에 생산 기지를 둔 많은 경영자가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공장을 가동해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각국에 공급하는 '생산 기지형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년에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인건비 · 복지 비용이 크게 올랐고, 이런 영향으로 앞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어져 인류가 물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2019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달러를 돌파한 중국은 임금 수준이 꽤 높아져 이제는 해외 자본이 설립한 공장이 하나둘 철수하고 있다. 대안으로 주목받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도 선진국들의 기대만큼 저렴한 생산 기지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인 월급 9년 만에 114% 상승**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폭 오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중국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12년 379.6달러에서 2021년 812.6달러로 114% 올랐다. 이제는 중국인을 고용할 때 100만원을 훌쩍 넘는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중국은 젊은 노동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어 인건비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2021년)은 1.2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귀한 자식'으로 대우받으며 자란 중국 청년들은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난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3%에 달했는데도, 중국 제조업체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인구가 1억명에 근접해 중국의 대체재로 자주 언급되는 베트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공장 근무를 기피한다. 대신 배달 오토바이 기사로 일하는 것처럼 '긱 워커(gig worker · 단기 근로자)'로 살아가는 쪽을 선호한다. '인구 대역전'의 저자인 영국 경제학자 마노즈 프라단은 WEEKLY BIZ에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중국과 베트남의 젊은 세대는 윗세대보다 한 단계 위의 삶의 질을 추구한다"고 했다.

인도 · 인니도 중국 대체 쉽지 않아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 역시 '글로벌 생산 기지' 역할을 해내기에는 난관이 많다. 여전히 낮은 교육 수준과 열악한 인프라가 제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 남아시아팀장은 "인도의 인력 풀은 고등교육을 받고 IT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들로 양극화돼 있어 제조업에 적합한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다"고 했다. 안타라 할다르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WEEKLY BIZ에 "인도의 성인 문자 해독률은 74%로 96~97%인 중국과 베트남보다 상당히 낮다"며 "인도는 전체 도로의 40%가 비포장도로일 정도로 인프라도 취약하다"고 했다.

게다가 인도 젊은이들은 제조업보다 IT업계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인도 GDP에서 제조업 비율은 2010년 17%에서 지난해 13%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도 글로벌 기업이 생산 기지로 삼기에는 인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57%는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이며, 학교 교육 기간은 평균 7.8년에 그친다.

**'제2의 중국' 없으면 인플레 상시화**

거대한 미국 시장과 인접한 멕시코도 '세계의 공장'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 홍성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멕시코는 아시아 · 유럽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낮고 미국 · 캐나다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 때문에 '전 세계를 위한 공장'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북미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미국 · 멕시코 · 캐나다무역협정(USMCA)은 멕시코의 임금 상승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USMCA는 자동차 제조 근로자 가운데 일정 비율이 최소 시급 16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북미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항인데, 멕시코의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교육 수준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며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주요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과거 중국처럼 단일 국가에 생산 시설을 집중 배치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할다르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제조 시설이 집중됐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이미 지켜본 바 있다"며 "개발도상국들이 (산업 고도화와 거리가 먼) 중국이 하던 저임금 생산 기지 역할을 넘겨받으려고 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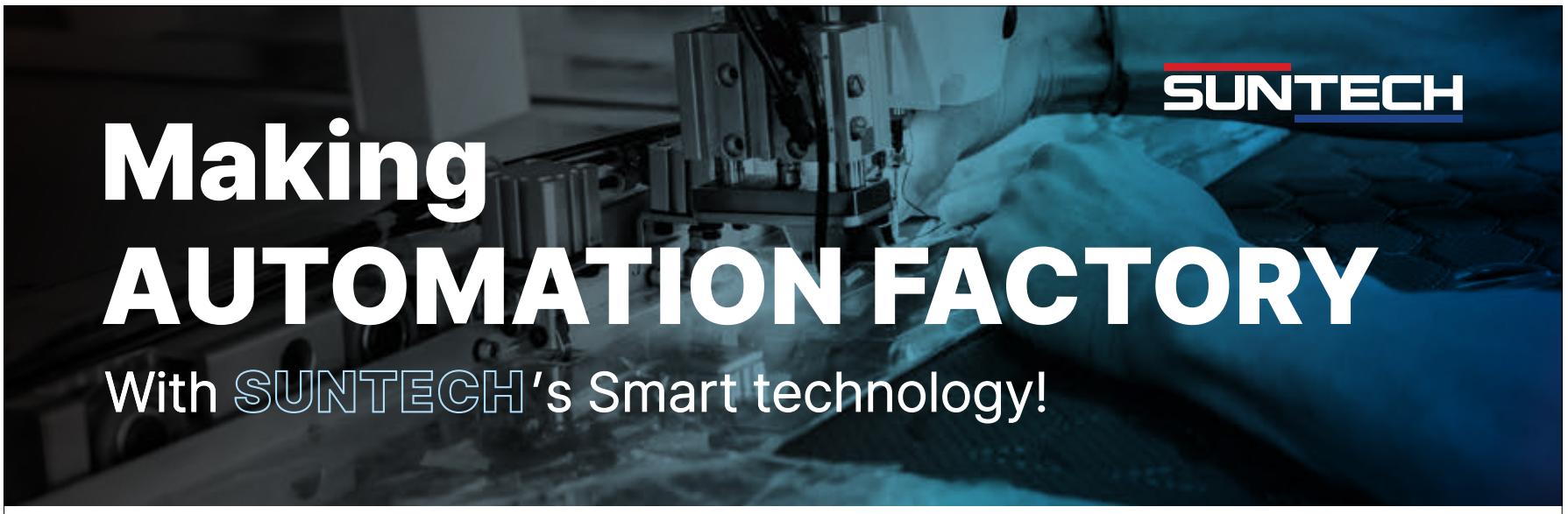
찰스 굿하트 런던정경대 명예교수는 WEEKLY BIZ에 "지난 30년간 서구 기업이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면서 상품 가격이 하락한 덕분에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1.5%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인구 구조 변동으로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저성장과 고물가의 조합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WEEKLY BIZ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카다록
도서출판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카렌다
행텍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SINCE 1969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株式會社 三湖보일러
SAMHOBOILERCO., LTD.
www.samhoboiler.com
삼호 보일러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노통 연관식 보일러
•용량 : (1T/H~15T/H)x1.0Mpa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PT. YUSUNG JAYA ABADI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 인 대 Hp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Fax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 마 랑 : 정 연 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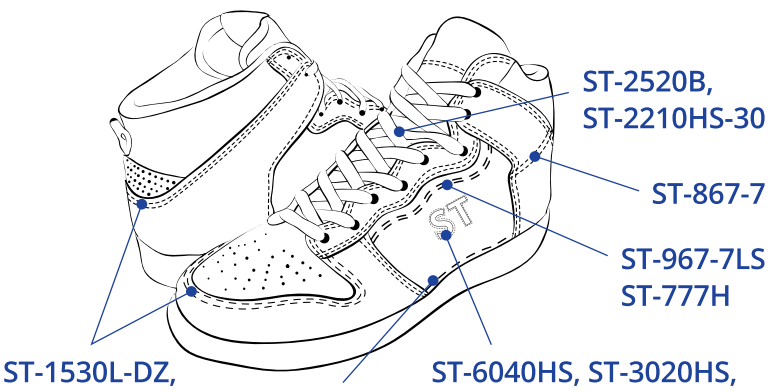
**ST-6040HS-C3**
3-컬러 컴퓨터 패턴 재봉기

**SFT-10616**
코딩 자수기

**ST-666H(롤러 1본침), ST-777H(롤러 2본침)**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168 Series**
아리안스 재봉기

## APPLICATIONS



**CIKARANG OFFICE**
Ruko Podium Blok A No. 1 dan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17550
**TEL** 021-2210-4936 **FAX** 021-2210-4994
021-2210-4937

**JEPARA OFFICE**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 006 RW. 001, Pecangaan Jepara
**TEL** 0291-752-0288 **FAX** 0291-752-0588

**REMBANG OFFICE**
JL. Panglima Sudirman No. 156 6 RT. 002 RW. 03 Kabonganlor, Rembang, Jawa Tengah
**TEL** 0295-698-3799